

신임 아야진초교 김춘만 교장 / '감성교육' 꽃 피우겠다

“감성 풍부하고 꿈 있는 바른 사람으로”

“6학년 43명의 아이들 모두가 감성이 풍부하고, 꿈이 있고, 행동과 마음이 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일자로 아야진초교 교장으로 부임한 김춘만 교장(59세, 사진)은 “33년간 교직에 몸담아 왔는데, 마지막 3년을 고향에서 보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아야진초교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교장은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정(情), 본(本), 일(事)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가르치려는 사람보다 정으로 감싸주는 사람이 오래 기억된다”며 “자기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했다.

또 본에 대해서는 “누구의 본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만,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 아이들은 책읽기를 좋아하게 된다”며 “이 본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 훌륭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일에 대해서는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주어진 역할이 있다”며 “아이들이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김교장은 특히 “도시 아이들과 시골 아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성적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라며 “문학, 음악, 미술 등 예술체험을 통해 지역 아이들이 대도시 아이들에 비해 뒤지지 않도록 가르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다른 학교에 비해 아야진초교 동문회가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안다며, 동문회 활동이 학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일 열린 입학식에서 아야진초 1회 졸업생으로 재경고

성군민회장을 맡고 있는 지승연 동문이 입학생 5명에게 각 50만원씩이 적립된 통장을 나눠줘 박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교육자이면서 시인으로도 유명한 김교장은 1988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한 뒤 ‘어린 생명에게도 그들을 던져야 한다’와 ‘산천어 눈빛 닮은 당신’이란 제목의 시집을 발간했다. 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장과 ‘갈피’ 회장, 강원문인협회 이사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교직을 떠난 뒤에는 고성지역에 예총을 발족시키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고성문학회 를 모태로 사진과 국악, 미술 등의 분과를 합친다면 고성예총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현진 출신인 김교장은 지난 1971년 교원양성소를 졸업하며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뒤 기간제 교사로 활동했으며, 4년간



고성군청 공무원 생활을 하기도 했다. 1979년 정식 교사발령과 함께 양양 현 북초에서 첫 교직을 시작했으며, 2004년에는 교감으로 승진했다. 이어 2009년 교장 승진과 함께 인제 귀둔초에서 일하다 이번에 아야진초 교장으로 부임했다. 가족은 간성초 행정실장으로 일하는 부인 김마라씨(56세)와 1남1녀. 최광호 기자



활빈단 박길복 고성지단장

탈북난민 복송 반대 캠페인

최북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활빈단 박길복 강원고성지단장이 토성면 천진해수욕장 앞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탈북난민 복송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최광호 기자

거진의용소방대장 · 여성대장 이 · 취임식

속초소방서 거진의용소방대장과 여성대장의 이취임식이 13일 오전 11시 거진을 문화복지센터 2층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 제15대 김윤기 대장이 이임하고, 제16대 김양성 대장이 취임한다. 여성대는 제4대 조정희 대장이 이임하고, 제5대 공영구 대장이 취임한다.

고성지역 최초 ‘교장공모제’로 부임한 김시현 고성고 교장

“학생 행복·교사 보람·학부모 신뢰”

“입기 4년이 보장된 만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 교사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어 강원도 교육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소재한 학교 중 최초로 교장공모제 방식을 통해 김시현 교장(57세, 사진)이 고성중고등학교에 지난 1일자로 부임했다.

김교장은 고성군 죽왕면 오봉 출신으로 1980년 삼척 도계중고에서 교직생활을 처음 시작한 후 고성고, 동광농중고, 대진고 등을 거쳐 강원도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로 5년 6개월, 속초·양양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로 5년을 근무하는 등 교육계에 33년째 몸을 담고 있다.

온화하고 침착한 성격을 지닌 김교장은 학생, 선생님, 학부모 등의 여러 의견을 세심하게 귀 기울여 스마트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인 고성고는 농어촌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선생님들의 열성적인 가르침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아낌없는 지원덕분으로 정원



미달을 보이는 대부분의 시골학교와 달리, 한 학년 4개 학급 유지와 올해 신입생이 8명 탈락할 정도로 탄탄한 학교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또한 고성중학교도 올해부터 선진형 교과 교실제를 운영해 지역인재들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양질의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에 탄력을 불리기 위해 김 교장은 학부모 교육연수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속초·양양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학부모 교육을 담당했던 김교장은 “학생과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학교교육, 진로, 성장, 생활지도 등 학부모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며 “학생, 선생님,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되는 가운데 모교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교장은 공현진초, 동광중, 고성고, 관동대,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가족은 부인 조영순씨(53세)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원광연 기자